

건설 현장 월레비, 정부는 '불법' 법원은 '합법'

윤석열 대통령 “불법 방지 안돼”
광주고법 ‘월레비는 임금’ 인정
경찰, 또 다른 월레비 수사 착수
판결, 수사에 영향 미칠지 주목

정부가 타워크레인 월레비(수고비 명목의 급여외수당) 수수 등 건설현장 불법·부당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최근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받은 월레비는 임금’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광주경찰이 또 다른 건설 노조의 월레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해당 판결이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민사1-3부는 지난 16일 담양 소재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 A건설산업이 타워크레인 회사 소속 운전기사 장모씨 등 16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

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장씨 등은 2016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A건설산업이 하도급 받은 공사현장 6곳에서 타워크레인을 운전했다.

이 과정에서 A건설산업은 타워크레인 업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월레비 300만 원을 요구하는 16명의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총 6억 5400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A건설산업은 ‘월레비는 부당이득’이라며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건설산업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건설산업의 월레비 지급이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여기에 더해 ‘월레비에 임금의 성격이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건설산업과 기사들 사이에는 월레비 상당의 돈을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묵시적 계약’이 있었다”며 “하청인 철근콘크리트 업체의 월레비 지급은 수십

년간 지속된 관행으로, 사실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 성격을 가지게 됐다”고 판단했다.

반면 같은 날 오전 정부는 윤산 대통령실 제8차 국무회의에서 ‘월레비는 불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채용 강요·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지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 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 관계 부처는 노동개혁을 뒷받침할 만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바란다”고 건설노조를 압박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은 노조 전임비·타워크레인 월레비 수수 등을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로 규정하고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또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과태료 부과·지원금 중단·세액공제 재검토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법원과 정부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엇갈린 가운데, 현재 수사 중인 광주경찰의 ‘타워크레인노조 월레비 요구’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월레비를 강요나 협박에 의해 빼앗아 갔다’는 호남·제주 철근콘크리트 연합회 측 고소에 따라 관계 노조 간부와 노조원 36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월레비가 노무 계약서상 시간외수당 등이 아닌 불법적 상납금 성격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는데, 이에 반하는 항소심 판결이 나온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의 초점은 월레비를 노조 측 협박과 강요에 의해 지급했다는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라며 “합법 임금 이더라도 강압에 의한 것이라면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노조 등을 압수 수색을 해 증거를

분석 중인 경찰은 조만간 입건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검찰과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받은 월레비는 ‘사실상 임금’이라는 광주고등법원 판결을 받으면서, 광주경찰의 수사가 이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암 건설노조 광주·전남 타워크레인 지부장은 “월레비는 상호 합의하에 ‘이익의 논리’로써 이뤄진 관행이다.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사측이 먼저 월레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며 “항소심에서 월레비를 임금으로 인정한 건, 재판부도 월레비가 ‘상호 이익’의 성격으로 본 것이 아니겠나”라고 환영했다.

홍관희 민주노총 노무사는 “이번 사태는 형사 소송과도 연계돼 있어 자칫 견장을 수 없는 ‘분쟁’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며 “폐소한 항소심 판결이 경찰 수사에서도 중요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정성현·강주비 기자

113개 시민단체, ‘특전사 행사’ 대책 논의

“공동선언식은 2·19 폭거”
공법 단체 사과·철회 요구
대표단 구성 후 대응 모색

5·18단체와 대한민국특전사동지회(특전사동지회)가 강행한 대국민 공동선언식(공동선언식)을 두고 광주시민사회가 후속 대응을 논의할 기구를 구성했다.

113개의 시민단체가 모인 오월정신 지키기 범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21일 오전 10시30분께 동구 광주 YMCA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공동선언식 주최 단체에게 사과와 선언 철회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는 절차를 무시한 채 공동선언식을 강행한 5·18공법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 대표들에게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

대책위에 참여한 시민들은 이번 공동선언식을 ‘공법단체가 대표성을 내세워 5·18을 사유화하고 독점한 행위’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공동선언문의 내용을 역사 왜곡이라 비판하며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용서와 화해를 위한 대국민 공동선언의 본질’을 주제로 발표한 박홍산 광주전남6월항쟁 상임이사는 “화해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하게 구분돼야 한다. 그러나 이번 공동선언식은 계엄군을 민주 시민의 정의로운 항거를 억압한 가해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왜곡이 자행된 셈이다”라며 “특전사동지회는 군항보로 국립5·18민주묘지를 짓밟고, 5·18기념문화센터 앞에서 공수부대 제복을 입고 도열하고 서서 다시 한번 점령군 행세를 했다. 이들의 행동 어디에서도 진심 어린 사죄와 진상규명을 위한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상임이사는 “이러한 역사왜곡 시도와 진상규명을 방해한 행위는 폭거나 다름없다”며 “이번 공동선언식을 추진한



광주 지역 113개 시민 단체가 21일 광주 동구 YMCA 무진관에서 ‘오월정신 지키기 범시민대책회의’를 열어 5·18민주화운동 일부 단체가 지난 19일 진행한 ‘포용과 화해와 감사 대국민 공동 선언식’ 행사를 규탄하며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5·18 단체 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책위는 회의에 참여한 모든 단체가 대표단을 꾸려 전체 대표자 회의를 통해 대책위 주요 방향과 방침을 결정하

기로도 합의했다.

또한 대책위는 △고문단 △자문단 △대표단 △상임대표단 △공동실행위 △사무국 등 조직 체계를 갖춰 출범시키고 후속 활동으로는 황일봉 부상자회장과 정성국

공로자회장, 휘하 집행부를 향한 사과 촉구와 퇴진 운동을 예고했다. 대책위는 오는 23일 오후 2시께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발족할 예정이다.

김혜인 기자

드론타임 DRONE TIME

고퀄리티(4K) / 저렴한 가격
드론 촬영·편집

스포츠행사/축제/산업현장
호텔/펜션/학교
부동산광고·분양/지적도
선박특수촬영/생산시설/양식장
아파트/교회
웨딩/이벤트/(월)드라마 등

드론타임
010-5681-8084

주재기자 모집

당사는 지역언론을 선도할 진취적이고 창의적 이상을 갖춘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집지역 및 인원

| | |
|----|------------|
| 지역 | 고흥, 담양, 보성 |
| 인원 | 각 1명 |

제출서류

- 이력서(연락처 명기)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자기소개서 1부

접수마감 및 접수처

- 접수마감 : 채용시 마감
- 접수처 : 우편 접수 -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전남일보사 경영본부
- 이메일 접수 - recruit@jnilbo.com
- 기타 사항은 ☎(062)510-0421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全南日報

봄에 떠나는 그림의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승선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승선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승선문의** 061-834-3434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투어나우** : 062-575-8019